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10 pp. 739-746,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10.73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채널A 〈도시횟집〉을 중심으로-

함현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A Study on the Story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Observational Entertainment TV Program

Hyun Hahm
Dept. of Broadcasting & Film,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는 중요성은 전작 프로그램의 후속 작으로 재현되는 과정과 새로운 포맷을 적용하여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으로 갖고 있다. 특히 공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스토리 구조의 특징은 인간의 삶과 장소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상호관계의 일상성의 문화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장에 주목하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장르의 혼종성에 의한 재현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장르로 자리매김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채널A의 〈도시횟집〉은 공간과 장소에서 표출되는 상황에서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시청자와의 소통구조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공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상호매체성의 결과는 시청자에게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간과 장소는 시청자와의 소통구조를 이끌어가기 위한 특별한 방식은 주체인 인간과의 삼중적 관계에서 공감의 소통구조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story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an observational entertainment program, including the process of reproduction as a follow-up to a previous program,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by applying a new format. In particular, the character of the story structure that occurs in space and place must pay attention to the field of experience that occurs in the daily mutual relationships that arise from the combination of human life and plac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observational entertainment programs have established them as a genre that can continuously be reproduced by genre hybridity. Compared to other genres, the hybridity of observation and entertainment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and production is activated as an alternative distribution. Channel A's 〈Urban Sashimi Restaurant〉, which is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is study, is used as a key strategy to emphasize reality in a situation expressed in space and place, and to lead a communication structure for viewers. The result of an intermediary that occurs in the space and place used in an observational entertainment program provides a field of experience to viewers.

Keywords : Entertainment TV Program, Space, Place, Human, Reality

본 논문은 2023학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 Hahm(Chungwoon Univ.)
email: poparts@chungwoon.ac.kr
Received September 20, 2023 Revised October 4,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장르로 자리매김 하였다. 관찰과 예능의 장르적 결합에 의한 혼종적 상황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적극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방송 장르의 대안적 유통으로 활성화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구성과 형식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은 리얼리티의 내러티브 구조를 꼽을 수 있다. 그에 따라 한국 관찰 예능 특유의 소재인 '가족', 그리고 엿보기, 관음증 같은 키워드들이 주목받기도 했다[1].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구조는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전형적인 포맷이 구축되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은 리얼리티를 부각하기 위한 소재의 선정과 표현 방식에 따른 편중된 시선과 논쟁의 대상이 끊임없이 부각된다. 그럼에도 실제적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관찰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독창적인 예능적 요소들은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포맷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안정화된 정착과 다양한 포맷을 적용하여 변화된 측면은 성공한 콘텐츠로써 평가받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극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몰이는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과 구성의 핵심축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리얼리티의 표현 방식이다[2]. 이러한 특징은 하나의 성공한 예능프로그램 포맷의 개발과 실험과정을 거치고, 성공이 포맷으로 결정되면 그 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3]. 그 결과,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리얼리티와 접목되어 오랜 시간 동안 방송 프로그램의 중요한 편성 전략을 활용되는 장르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채널A의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텍스트 분석의 일환으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의 형성과정 및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토리구조의 변화된 측면을 살펴보는데 목적으로 갖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소통 구조의 특징과 현상을 분석하고, 시청자와의 소통구조를 이끌어가는 공간, 장소, 인간의 삼중적 관계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적 성격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를 대표하는 포맷과 구성의 형식은 다변화에 따른 혼종화된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현장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에 따른 관찰의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방식에서 시청자의 심리적 작용과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방송 관찰 예능에서 '관찰'은 하나의 형식이며, 동일한 형식 안에서 서사성을 만들고 텍스트별 변별성을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 요소는 관찰자이다[3].

관찰자인 시청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은 경쟁력 있는 포맷의 구축과 구성 내용이다. 그에 따른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경쟁을 유도하는 포맷과 구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포맷 자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포맷 내에서 경쟁 요인과 플롯 구성 방식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4]. 그로인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다이렉스 시네마 촬영 기법에 의한 시청자의 관찰자적 시선을 유도하거나,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선'과 '응시'의 관점은 쾌락적인 시선이 강조된 관음증을 부추기기도 한다[5].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거나, 출연자의 경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연진들의 경쟁 관계를 통해 그들의 갈등 관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경쟁 관계를 통해 출연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제작 환경을 생성하여 시청자들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증가 추세를 유발하였다[6]. 이러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과 표현 방식은 시청자의 수용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작용과 동일 프로그램의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 또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축된 리얼리티의 표현방식은 안정화된 포맷과 구성으로 정착되었다. 그로인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과 리얼리티의 결합은 다양한 장르의 혼종적 확장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호텍스트성의 발전으로 지속되고 있다[7].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장르의 발전적 계기를 조성한 제작자와 시청자는 상호작용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현종의 "관찰 예능의 장르화 과정과 스토리텔링 연구"

에서 '관찰자'는 관찰 예능의 장르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기여하고, 관찰자의 성격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주제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개별 텍스트 포맷의 변병성이 만들어진다고 논의하였다[8]. 그 결과,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자와 시청자는 상호매체성으로 발전하는 주체와 대상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과 높은 시청률의 성과를 거두는 장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더불어,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숫자적 증가와 함께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발굴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찰 대상의 스토리텔링을 구축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콘텐츠로 트렌드가 구축 되었다.

그 결과,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과 호감도의 증가 요인에 따른 긍정적 평가에 따른 성공요인은 친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인은 출연자의 친숙함과 연기의 역할에서 비롯된다. 방송연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의사사회 상호작용과 동일시 이론을 통해, 시청자들이 TV에 등장하는 출연자들과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시청자들은 출연자 한명과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집단 전체에 대한 관계 형성을 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9]. 이러한 성공요인은 출연자와 시청자와의 친숙하거나 친밀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자연발생적인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각각의 관찰의 대상에서 발생하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관찰자의 시점을 제공한다. 또한 출연진의 진정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장소와 공간의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출연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고, 리얼리티를 부각하기 위한 출연자의 진정성을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공간에 설치된 곳곳의 카메라에 담겨진 출연자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관찰의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레이션과 인터뷰의 활용을 통해 출연자가 카메라 앞에서 제작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출연자 스스로도 주체적인 참여 의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보이스오버 내레이션과 자막의 활용을 통해 관찰 내용이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0].

2.2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공간성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공간은 출연자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이 창발 하는 곳이다. 또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관찰의 대상인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발생하는 사실성이 확인되는 곳이다. 또한 출연자들은 대화 또는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표출은 시청자에게 실제적 사건 및 상황이 표출되는 리얼리티의 사실적 공간으로 발전 된다. 이러한 리얼리티의 공간 창출은 시청자의 감정이 이입되고 세밀한 관찰자적 시점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의 인과 관계가 형성된다.

앙리 르페브르에 의하면, 공간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지닌다고 정의하고 있다[11].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공간 활용은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시선이 교환되거나, 관찰자적 시점 제공에 중요한 사용가치의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출연자들의 행동양식은 현실성을 부각하고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사용가치의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간의 발견은 새로움을 더해주고, 출연자가 창발 하는 행동들은 이야기를 생산하고, 다양한 내러티브가 표출되는 공간으로 다양한 동시성을 부각하고 있다.

어떤 공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곳은 그저 우연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향하고, 위험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공간은 피하게 된다[12]. 이처럼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공간은 시청자에게 편안하고 익숙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동시성이 발생하는 곳이다. 공간은 일단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인지는 곧장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공간의 다양한 특성들은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런 감정 반응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13].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공간은 다양한 경험의 창구역할을 한다. 출연자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다양한 재현의 역할이 이주어지고, 출연자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경험의 장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시청자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공간은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특성 외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바로 상징적인 영역이다. 어떤 공간이나 건물은 그 용도나 활용에 따라 상징성을 갖는데 그 것이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14].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된 공간의 활용은 시청자의 몰입으로 유도하고 감정이 이입되는 열린 공간의 교환가치로 활용된다.

2.3 관찰 예능 프로그램과 장소성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장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관계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과 연관되거나, 개인의 취향이 창발 하는 장소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듯,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소의 활용은 인간의 삶이 장소와 결합되어 프로그램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소의 선택은 일상성의 모습을 담아내거나, 프로그램의 촬영 기간 동안 장소를 설정하고 펼쳐지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시청자들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장소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시지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에 의하면, 장소는 경관으로 이해되고 경험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간 활동의 모습이 시각적 특징을 갖고 가치와 의도를 반영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5].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장소의 섭외는 매우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시지각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장소 발견은 공간의 활용과 연결되고 다양한 경험의 장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생산적 공간이 변증법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출연진들의 모습, 분위기, 다양한 감성적인 부분들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배경으로써의 장소는 교환가치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에서 표출된 장소는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하거나,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추억을 만들거나, 장소의 분위기와 감성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특정한 장소의 특별한 경험의 장소성의 의미를 구축하게 된다. 결국 장소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실존적 경험은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장소는 관광명소로 경제적 가치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양한 방문객의 활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변 상인들의 경제적 수익의 창구 역할과 더불어 랜드마크의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는 가치와 의미가 조성된다. 이렇듯, 장소는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경험을 함께 하고 관련을 맺음으로써 창조되고 알려진다[16].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장소는 프로그램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장소를 통해서 출연진들의 개성이 표출되고, 장소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장소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형성한다. 또한 장소의 주변을 통해서 관계를 맺거나, 연결되는 특징은 인간과 장소의 경험이 확장되는 특징으로 발전된다. 더불어, 장소는 친밀한 경험을 시작하는 곳이다. 장소의 접근을 통해서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인간에게 다양한 실질적인 경험과 친밀감이 형성되는 요인으로 발전된다. 즉 장소의 가치는 특별한 인간관계의 친밀감에서 비롯된다[17].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장소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시청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2.4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소통구조와 전략

인간의 시선은 끊임없이 보고자 하는 욕망의 메커니즘이 구현되고, '보기'의 행위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주체와 대상간의 소통을 구현한다[18]. 이러한 인간의 시선과 관찰자적 시점을 제시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주제와 대상간의 명확한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그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따른 명확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전달한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혹은 출연자가의 캐릭터가 프로그램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아래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는 다양하게 진해되고 있다. 이현종은 관찰 예능이 지니고 있는 설정의 특이성이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관찰 예능이 대상에 대한 일상의 공유를 통해 '공감'을 주요한 주제로 한다면, 그러한 설정이 양식화되어 시청자와 연결되도록 하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19].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가는 공간, 장소, 인간의 삼중적 관계는 중요한 소통구조의 역할을 한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표출되는 출연진들의 개성과 특징에서 비롯된 내용의 구성은 그들의 다양한 심리적 반응과 행동들이 시청자에게 관찰자적 시점을 제공한다. 그 결과 관찰과 예능의 결합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 장르의 개발과 포맷 설정의 중요성은 감안한다면,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접근 방식과 전략의 중요성이 시청자와의 소통을 이끌어가는 사항으로 인식된다. 그로인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독창적인 소재의 개발과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기획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소통구조를 이끌어가는 스토리

텔링의 핵심은 시청자와의 소통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의 핵심은 소통구조를 생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호감도 증가요인과 시청요인의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적인 안정장치는 리얼리티를 부각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전 대본을 최소화하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20]. 이러한 특징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되어 시청자에게 관찰자의 시점을 제공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여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포맷과 구성은 시청자와의 소통구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3.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의 텍스트 분석

3.1 소통구조 분석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은 시청자의 많은 관심과 화재를 낳았던 〈도시어부〉의 후속편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인 도시어부가 생선을 직접 잡고, 직접 요리하고, 음식을 서빙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포맷의 구성형식을 갖추고 있다.

도시횟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출연진(도시어부)들의 역할분담은 철저하게 분업화 되었다. 총괄 지배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덕화는 매장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요리를 담당하는 이경규는 메인 주방을 담당하면서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한 요리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 역할이다. 이수근은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고 식당의 홀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의 메인 역할을 담당하는 배우 이태곤은 회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손질하는 주방장으로 모든 회를 손질하거나 전반적인 생선 요리를 척척 해낸다. 김준현은 주방의 팀 주방장 역할을 하며, 이경규와 함께 음식 조리를 당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홀 메니저를 담당하는 윤세아는 활기차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다.

3.2 공간, 장소 인간의 삼중적 관계 분석

이 프로그램의 삼중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공간, 장소, 그리고 인간은 출연진과 방문객들의 다양한 심리적 상황이 표출되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다. 특히, 도시횟집의 공간은 새로운 생산의 역할을 하고, 방문객들에 의한 끊임없는 재생산의 창출공간으로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푸 투안이 논의한 것처럼, 공간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21].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방문객의 호기심의 출발은 낯선 공간에서 시작되면서 익숙함의 편안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의 장소성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은 지각되고, 인지되고, 새로운 체험의 장을 형성하는 장소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조를 이끌어가는 출연진들의 특징은 공간의 활용 범위와 생산 능력의 차별화된 업무분장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간의 상징적 의미 작용을 구축하고 있다. 즉 출연진들의 공감상황이 연출되고, 음식을 활용한 공감도구를 통해 명확한 도시횟집의 상징적 의미 구축은 방문객들과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특별하게 초대된 방문객은 즐거움의 대상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 에 따른 도시횟집의 장소는 방문객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실존의 이미를 구축하고, 경험의 장을 확산하고, 장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장소의 구축은 음식을 통해서 실존적 경험에서 발생하는 맛에 대한 생각과 느낌의 전달을 통해서 발생되는 분석의 결과는 의도적인 경험의 출발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의 전환의 과정으로 전환되는 주체와 대상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의 삼중적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축은 음식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은 매일 새로운 맛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주방의 요리를 담당하는 출연진들은 음식전문가의 수준 또는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맛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음식의 맛을 내기위한 음식 조리과정을 통해서 표출되는 역할은 상징적인 코드로 작용한다. 또한 음식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 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의미작용은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을 유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보이는 요리는 날것과 익힌 것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미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낚시를 통해서 얻어진 자연산 식자재의 활용은 방문객에게 신선함을 제공하고, 조리된 음식을 통해서 새로운 맛에 대한 경험의 제공은 다양한 기대심리를 유도하고 있다. 결국,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새로운 메타-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표출되는 출연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각자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지각되고, 인지되고,

체험되는 과정의 결과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오감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3 통합체 분석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스토리 전개구성의 연결방식은 전작 프로그램인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의 후속 작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전작의 내용은 출연진들의 '낚시'를 통해서 어획량의 결과를 통해 황금 배치를 획득하는 경쟁구도를 담아내었다면, 그 후속 작은 직접 잡은 생선을 조리하고, 요리하고,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을 통해서 펼쳐지는 에피소드의 구성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토리 구조의 특징은 잡아온 생선을 중심으로 회를 치거나, 다양한 식자재를 활용해서 출연진이 개발한 조리법에 따라 직접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의 모습을 분업화된 시각에서 표출하고 있다. 출연진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관찰의 대상으로 시청자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몰입을 유도하는 관찰자적 시점을 제공한다. 또한 식당 방문객들의 기대와 심리작용은 출연진들이 제공하는 요리의 맛에 대한 방문객들의 심리적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행위적 시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4 계열체 분석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에 대한 등장인물의 특징과 상호작용의 결과는 전작의 출연자들과 새로운 출연자들의 역할 분담과 책임업무 분장의 조화로운 모습이 연출되는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소통구조 분석에서 제시한 출연진들의 역할 분담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분업화된 책임업무의 수행과정을 담아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출연진들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가는 각자의 특기와 실력을 발휘하고, 음식의 조리와 서빙을 통해 방문객과 시청자들에 즐거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기 위한 전략의 수단인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출연진들의 행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모습은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되는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5 행동자 모델 분석

이 프로그램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도시횟집을 준비한 출연진과 방문객과 시청자와의 소통관계를 이끌어가는 공감 도구의 활용은 '음식'의 문화적 할인이 격차가 최소화된 주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담보로 한 주제의 설정은 반대자의 대립쌍의 모델을 형성하기 보다는 보조자가 행동자 모델의 중심축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표출되는 대립 쌍의 특징은 각자의 업무 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의의 경쟁적 구도를 담아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체인 출연진들은 전작인 도시어부들로 낚시를 통해서 얻어진 다양한 생선의 맛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를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작의 어획량 획득의 경쟁적 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선과 식자재를 활용한 주방의 모습을 담아내는 관찰자적 시점을 제시하는 결과는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재현의 과정으로 새롭게 발전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체인 출연진들의 경쟁 구도의 형성은 각자의 업무 분장을 통해서 조리된 음식을 통해서 한상의 테이블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음식의 조화로움은 시청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이끌어가는 주체와 대상간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상호결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행동자 모델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보조자와 반대자의 대립 쌍의 전형적인 모습을 벗어나 방문객들에게 요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통해서 다양한 기대 심리와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채널A의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은 전작을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후속작으로 제작되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재매개의 현상으로 거듭 발전되는 특징은 재화의 용역으로써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전작의 성공요인은 낚시와 같은 레져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던 시점과 맞물려 낚시 인구의 저변 확대와 관련된 관련 상품 판매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한편, 후속작의 시청자 참여의 확대와 직접 잡은 다양한 생선과 음식을 출연진들이 조리와 음식 서빙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의 모습은 새로운 관찰의 대상으로 방문객과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관찰자적 시점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은 행동자 모델 분석의 결과에서 밝힌바와 같이, 출연진들의 대립 쌍의 전형적인 구조를 벗어나 상호작용의 발전

적 계기를 마련하는 결과를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시청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공요인은 전작을 후속편으로 제작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횟집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일반인들의 '참여의 장'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기존의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인 관찰의 대상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시청하는 관습적인 상황을 벗어나, 방문객들이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맛에 대한 경험을 하고, 출연진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은 TV시청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다양한 '경험의 장'의 제공은 쌍방향 소통을 이끌어가는 주체와 대상의 성공적인 전략으로 미디어 소통 구조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시횟집에서 전달되는 현장성의 모습은 직접적인 대상의 리얼리티의 현장감의 전달과정에서 표출되는 특징은 출연진들의 모습을 통해 부각되는 리얼리티의 사실적 표현이다. 특히, 인간, 장소, 공간의 삼중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 충족되어 쌍방향 소통 구조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전략의 성공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과 발전의 계기를 조성하는 특징은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의 장'의 문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러티브 구조의 확장이다.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특성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을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로 선정하고, 관찰의 대상으로 포착하고, 예능적 요소를 접목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은 혼종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 결과, 장르의 혼종성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시청자를 적극적인 '참여의 장'으로 초대하는 전략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시청자와의 미디어 소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인간, 장소, 공간의 삼중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점의 대상이다. 그로 인한 후속 연구의 대상인 관찰 예능 프로그램과 미디어 소통구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통해 미디어 소통구조의 성공요인과 수용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H. J. Lee, "A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Genre and Storytelling in Observation Entertainment Programs —Focusing on the Role of Observer" Latestlssue Journal,The Association of Popular Narrative, vol.25, no.2, p.217, 2019.
DOI: http://doi.org/10.18856/jpn.2019.25.2.006

[2] H. Hahm,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Feature of the Observational Entertainment Program", Image Technology Research, Moving Image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a, Vol.33, p. 58, 2020.
DOI: http://doi.org/10.34269/mitak.2020.1.33.004

[3] H. J. Lee, Above the paper, p.218, 2019.

[4] D. R. Rho, "Evolution of Entertainment Program Format", Journal of Korea Cont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1, p.55, 2015.
DOI: http://doi.org/10.5392/JKCA.2015.15.01.055

[5] H. Hahm, "A study on the TV reality show program's visual format and narrative structure :its an analysis of TV program's with 'Scand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8, No.6, pp-1649-1650, 2007.

[6] D. R. Rho, Above the paper, p.61, 2015.

[7] H. Hahm,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Feature of the Observational Entertainment Program", Above the paper, p.57, 2020.

[8] H. J. Lee, Above the paper, p.218, 2019.

[9] Y. J. Choi, K. H. Jung, "The Influences of the Relationships Formed by Entertainment Program Viewers on Program-Related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02, p.714, 2022.
DOI: https://doi.org/10.5392/JKCA.2022.22.02.710

[10] H. E. Lee, "Authentic Observation, or Voluntary Surveillance: Reality Television in the Context of Neoliberal Surveillance Society",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Korea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28, No. 2, p.232, 2014.

[11] Lefebvre Henri, 『La Production de l'espace』, ECO-LIVRES Co, p.28, 2011.

[12] Schmidt Walter, 『Warum Manner nicht nebeneinander pinkeln wollen』, Interpark(Banni), p..9, 2020.

[13] Perfahl Barbara, 『Ein Zuhause für die Seele』, Dongyang Books Corp, p.179, 2017.

[14] Perfahl Barbara, Above the book, p.180, 2017.

[15] Relph Edward, 『Place and Peacelessness』, Nonhyung Publishing Co, p.81, 2005.

[16] Relph Edward, Above the book, p.88, 2005.

[17] Tuan Yi-Fu,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Daeyune Publishing Co, p.225, 1995.

[18] H. Hahm, "A Semiotic Analysis of Interaction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ith Survival Audition Program", Image Technology Research, Moving Image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Vol.16, p.211, 2020.

DOI: http://doi.org/10.34269/mitak.2020.1.33.004

[19] H. J. Lee, Above the paper, p.220, 2019.

[20] H. E. Lee, Above the paper, p.211, 2014.

[21] Tuan Yi-Fu, Above the book, p.124, 1995.

함 현(Hyun Hahm) [종신회원]

• 1997년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TV Broadcasting/Film (예술학사)
• 2001년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석사)
• 2008년 :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박사수료)
• 2002년 ~ 현재 :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방송, 영화, 영상커뮤니케이션, 영상문화